

黃潤克所藏의 地藏十王圖

洪 潤 植

絹本着色

黃潤克氏 소장 (在美)

이 그림은 高麗佛畫의 樣式이 충실하게 묘사되어있는 地藏十王圖이다. 이에 對해서는 몇 차례 日本人들에 의해서 감정된바 있었고 또한 간단한 研究報告도 있었다(中吉功編「海東의 佛敎」)

이와같은 事實은 일찍부터 이 그림이 注目的 對像이 되었고, 따라서 佛畫로써 重要な 位置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일러주는 것이라 하겠다. 即 明治 二二年(一八八五) 二月에 古筆中은「眞蹟無疑者也」라 하여 이 그림에 대한 감정을 남겼는데 그에 의하면 이 그림은 吳道士가 그린「佛十六善神之像」으로 되어있다.

吳道士는 中國의 吳道子를 칭하는 것으로 韓國佛畫에서 作者가 未詳일 때 吳道士筆이란 口傳을 남기고 있음은 흔히 있는 일이다. 이 그림에 吳道士筆이란 감정을 하게된 것은 이런 경향에서 연유된 것이라 추정되며 이 그림의 명칭을「佛十六善神之像」이라 하게 된 것도 감정자가 佛畫의 內容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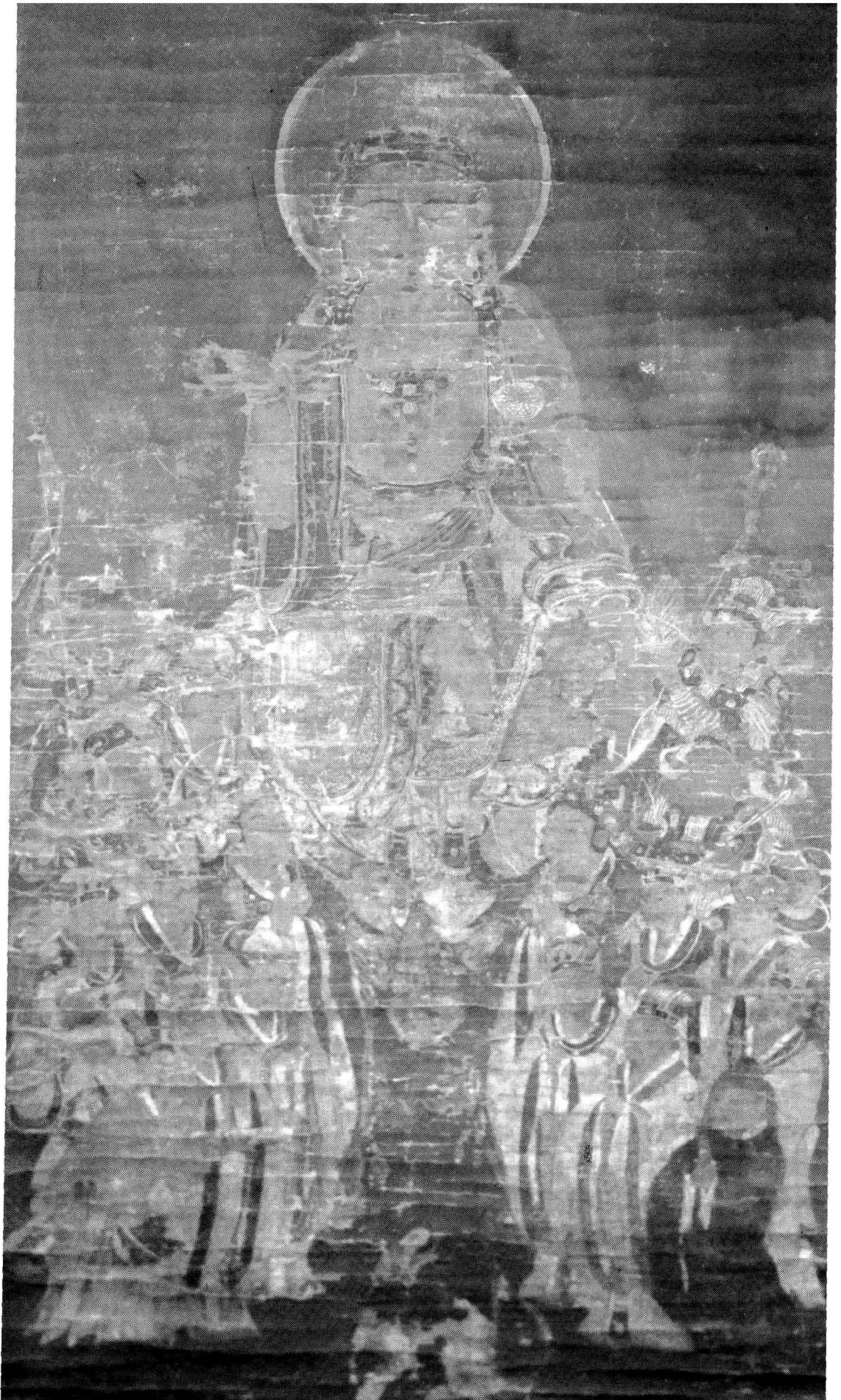
한편 日本에 傳하는 佛畫中에 日本佛畫나 中國佛畫로서의 國籍이 分明하지 않는 佛畫에 對해서 그저 막연하게 吳道士筆이라 하게됨도 한때 日本美術界가 갖는 경향이기도 했다. 때문인지 日本에 傳하는 高麗佛畫의 상당수가 한동안 國籍不明의 것으로 알려지고 또, 그것을 中國 吳道子의 그림으로 傳해졌던일도 있다. 그런가 하면「海東의 佛敎」에서는

이 그림을 비교적 정확하게 보고하고 있다. 即 그림의 명칭도 佛十六善神之像에서 地藏十王圖로 고쳐졌고 따라서 이 그림의 內容說明도 비교적 올바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림의 國籍도 高麗佛畫로써 高麗末期의 作品으로 추정하고 있음은 研究의 進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報告書에서도 高麗佛畫로서의 地藏十王圖에 對한 보다 확실한 연구자세는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數年前 日本 大和文華館에서 開催했던 高麗佛畫展을 통하여 高麗佛畫에 對한 圖像의 特徵이 分明해짐에 따라 이 그림이 高麗佛畫로서의 圖像의 特徵이 더욱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이 그림의 內容과 特徵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그림은 오늘날 傳하는 十數點의 高麗地藏十王圖 中の 하나로써 高麗佛畫로서의 內容을 충실히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樣式面에 있어서도 그 特徵을 잘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본다 即 이 그림은 地藏菩薩을 本尊으로 하고 下方 주위에 冥府十王과 그 眷屬인 判官, 錄事 등의 冥府衆과 四天王像을 묘사한 圖像으로써 高麗地藏十王圖로서의 圖像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地藏十王圖는 朝鮮朝에서 많이 圖說되어지나 高麗의 圖說과 樣式的인面에서 差異를 보이는 것은 本尊 以外的 諸像의 배치가 本尊의 身光과 頭光의 左右에까지 배치되고 있음에 反하여 高麗의 佛畫는 이들 諸像의 배치가 本尊座臺의 下方左右에 배치되어 있는것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點에서도 이 그림은 高麗佛畫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地藏十王圖」
黃潤克氏所藏